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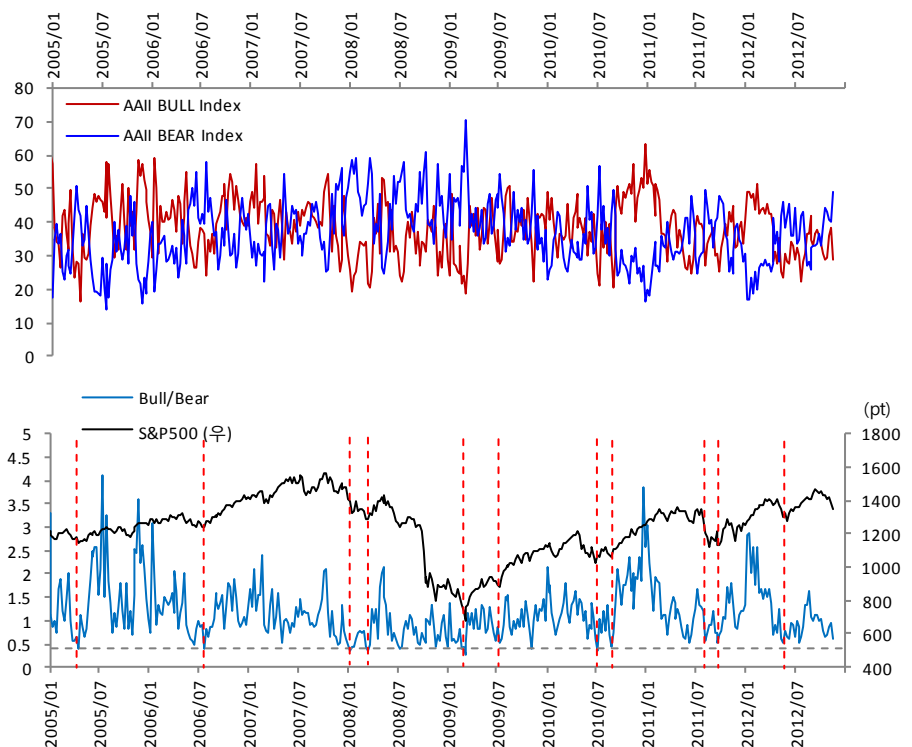
[주간 증시 점검] 어두운 시장 밝혀줄 빛은?

조정 연장 가능성 vs. 단기 반등 타이밍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 조정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밀리는 모습. 코스피는 지지선을 연달아 이탈. 120 일 이동평균선에 이어 지난 주에는 1870 선(올해 8 월 초 드라기 ECB 총재의 강한 립 서비스("Believe me") 나왔던 구간이자 9 월초 ECB 가 OMT(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발표했던 지수대)도 하향 이탈했음. 글로벌 증시 조정 원인인 미국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운 고조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등장한 점 때문에 지수 조정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음.

하지만 위축된 투자 심리로 보면 역설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법한 타이밍이기도 함. 아래 [그림 1]에서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기준 시장 낙관론과 비관론 지수를 보면 11/15 기준으로

[그림 1] 2006.1~2012.11 유가증권시장 연가금 월간 누적 순매수 금액



주: 미국 낙관론, 비관론은 '향후 6개월 뒤 시장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에 대한 응답

자료: Bloomberg

낙관론은 최근 4 주래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고, 비관론은 올해 5 월초~7 월말(스페인 위기, 미국 경제지표 부진) 당시 기록했던 최고 수준을 넘어섰음. 비관 심리 강화 속에 최근 미국 주식시장 낙관/비관 비율은 0.59 기록 중. 2005 년 이래 정도 차가 있긴 하지만 낙관/비관 비율이 0.5 이하 구간에서는 바닥을 확인했고, 이에 맞추어 시장(S&P500)도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 흐름을 이어가거나 하락 국면에서도 단기 반등을 연출해 왔음. 경험에 기대어 보면 비관 심리 강화는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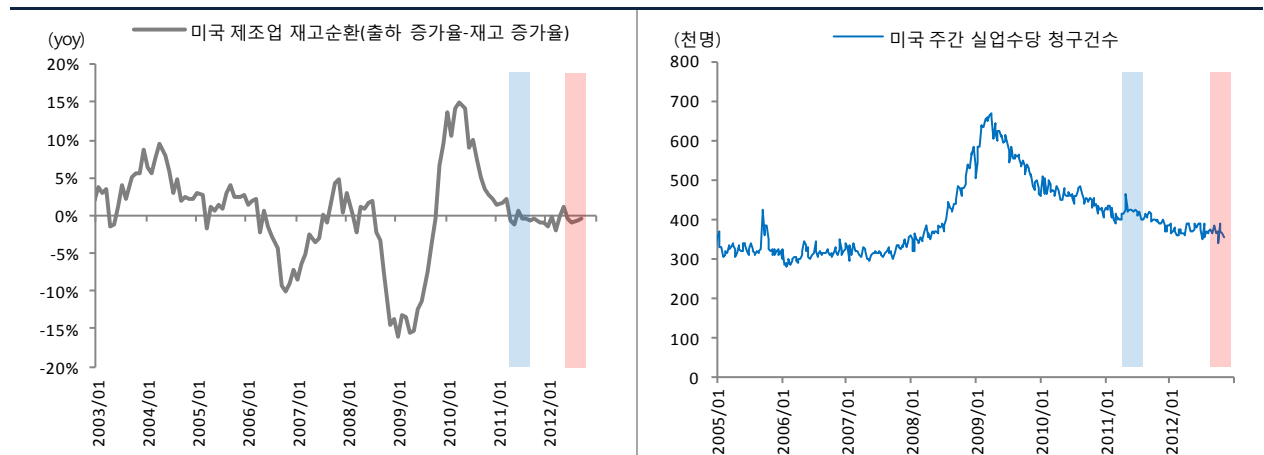
어두운 시장 밝혀줄 빛은? 미국 Black Fri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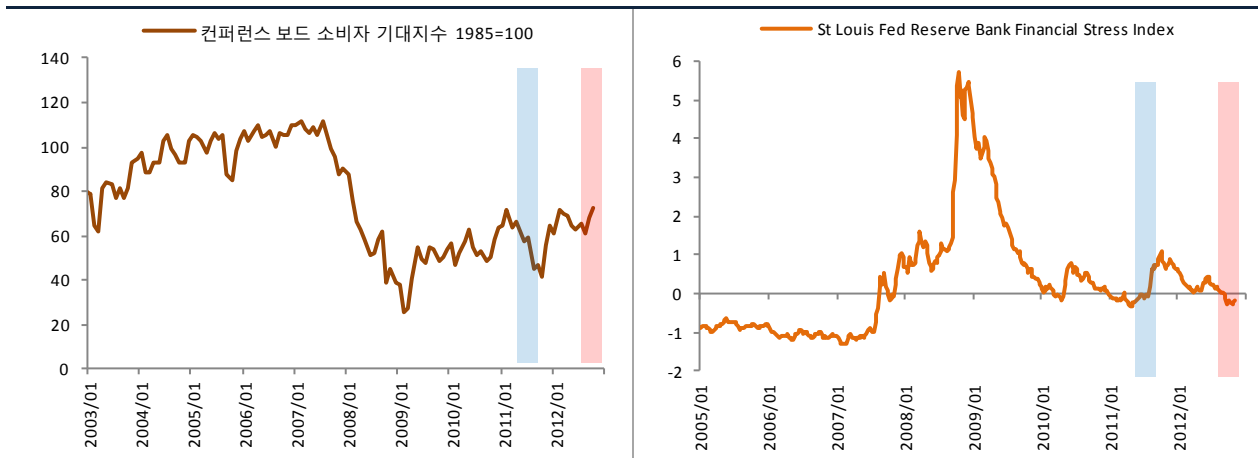
현 시점에서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는 금주에 있는 미국 Black Friday 와 연말 소비 시즌 (미국소매협회 NRF 기준, 연말 소비 시즌은 통상 매년 11 월~12 월). NRF 에 따르면 올해 미국 소비 시즌 소매판매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1%로 예상되고 있음. 2010 년과 2011 년 각각 +5.6%에 비하면 약화된 것처럼 보이나 최근 10 년간 평균치 +3.5%는 여유 있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시건대 소비자기대지수로 보면 미국 소비 심리는 서브프라임 위기가 본격화 되기 전인 2007 년 7 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데, 소비 심리 지표로 볼 때 올 연말 소비 시즌 성적표는 양호할 것으로 기대

변수는 역시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 하지만 작년 7 월과 다른 점 주목

물론 올 연말 소비 시즌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 불안감일 것임.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작년 7 월(당시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갈등 증폭, 합의 지연되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과 현 시점을 비교해 보면 경기와 금융시장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 미국 제조업 재고순환지표는 저점을 다지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고용 역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자 심리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금융시장 스트레스 지수 역시 하향 안정된 상태. 이처럼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보면 올해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은 시장에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

[그림 2] 작년 7월에 비해 현재 미국 경기, 금융시장 여건 좋아졌다





주: 푸른 색 음영은 작년 7월 전후, 붉은 색 음영은 현 국면
자료: Bloomberg

관심 업종 1순위는 단연 IT

미국 연말 소비 시즌 국내 수혜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연 IT 섹터. 지난 해 기준 미국 연간 소매판매액에서 소비 시즌 소매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섹터 별로 보면, 보석류(27.8%), 전기전자제품 및 장비(22.8%), 의류 및 액세서리(22.8%) 등이 상위권에 포진. 최근 3년간(2009~11년) 미국 Black Friday를 기점으로 -1주차(Black Friday 포함 주간), +1주차, +2주차, +3주차 국내 주식시장 업종별 주간 수익률을 비교하면, 정보통신과 반도체 업종이 시장에 비해 하락할 때는 덜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하는 선전 양상 보여 왔음. 국내 필수 소비재는 지수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 관찰.

[표 1] 2009~2011년 미국 Black Friday 전후 국내 주식시장 업종별 주간 등락률

		코스피	자동차	반도체	건강산업	은행	정보통신	에너지화학	철강	필수소비재	미디어통신	건설	증권	조선	보험	운송
2009	-1W 주간 등락률	-5.93%	-7.07%	-5.64%	-3.62%	-10.64%	-5.24%	-4.55%	-5.39%	-0.78%	-2.35%	-11.38%	-8.99%	-10.64%	-9.55%	-4.66%
	+1W 주간 등락률	6.58%	7.86%	8.02%	4.71%	8.64%	9.18%	7.34%	4.40%	3.61%	2.64%	5.91%	9.31%	8.89%	8.68%	6.77%
	+2W 주간 등락률	1.98%	6.14%	2.05%	3.77%	-0.39%	2.22%	2.96%	1.08%	-1.37%	2.05%	1.33%	3.23%	8.50%	-0.75%	3.10%
	+3W 주간 등락률	-0.60%	0.19%	0.43%	0.39%	-3.01%	-0.29%	-2.20%	0.74%	-1.70%	-0.20%	-0.53%	0.36%	-1.94%	-5.82%	-0.69%
2010	-1W 주간 등락률	-2.02%	-6.72%	-0.26%	-4.61%	3.60%	0.42%	-4.33%	-3.36%	-0.05%	-1.88%	-0.48%	-3.90%	-5.18%	-2.74%	-1.68%
	+1W 주간 등락률	2.92%	7.12%	0.72%	4.56%	0.24%	1.42%	5.07%	2.05%	0.25%	0.62%	4.82%	0.98%	-0.23%	-0.01%	3.54%
	+2W 주간 등락률	1.48%	-0.63%	2.46%	2.06%	5.49%	2.71%	-0.12%	3.28%	0.98%	1.11%	0.07%	7.11%	1.50%	0.98%	0.48%
	+3W 주간 등락률	2.02%	-0.42%	0.09%	-0.25%	4.67%	0.01%	1.36%	1.89%	0.80%	1.29%	3.54%	8.83%	14.09%	3.41%	0.32%
2011	-1W 주간 등락률	-3.41%	-3.73%	-4.34%	-6.59%	0.34%	-3.46%	-6.91%	-6.39%	-0.32%	-0.06%	-5.77%	-3.95%	-5.92%	-1.24%	-4.15%
	+1W 주간 등락률	7.86%	5.39%	7.25%	11.01%	8.99%	8.27%	10.70%	11.54%	1.46%	2.65%	12.12%	14.04%	12.88%	3.64%	10.23%
	+2W 주간 등락률	-2.15%	-3.29%	-1.21%	-1.18%	-6.89%	-3.11%	-4.61%	-3.54%	0.17%	-1.45%	-1.60%	-4.55%	-1.55%	-0.12%	-2.71%
	+3W 주간 등락률	-1.86%	-3.41%	-0.71%	-0.44%	-3.55%	0.25%	-4.43%	-5.13%	0.13%	1.28%	-2.05%	-2.94%	-7.15%	-3.02%	-2.61%

주: 업종 구분은 KRX 섹터 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상품마케팅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승재